

디지털로드의 시대

인류는 교류와 소통을 통해 문명을 창조해왔다. 인류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이웃마을과 물물교환을 하는 것에서 시작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소박한 교류들이 확장되면서 문명 간의 교류로 확대된 것을 말해준다.

문명 간의 소통이 평화적으로 이뤄진 경우도 있었지만 무력을 동원한 전쟁과 정복, 강제적 개방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대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패권쟁탈전(Greco-Persian Wars, BC 492경~449경)은 최초의 동서 문화 충돌이다. 그후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BC 356~ BC 323)이 출현하면서 동방원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리스,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서역을 정복하고 인도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헬레니즘이란 새로운 문화가 형성됐다.

동서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에서 간다라(Gandhara) 미술이 탄생했다. 원래 신격화된 불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불교는 서기 1,2세기경 그리스풍의 자연주의·현실주의를 반영하여 불상과 조각을 만들기 시작했다. 중국, 한반도는 물론 일본에까지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Silk Road)가 형성됐고, 이 길을 따라 중국의 비단

과 서역, 로마의 문물들이 오갔다. 통상 실크로드는 중국 중원(中原) 지역에서 시작, 간쑤 성(甘肅省) 란저우(蘭州)에서 치렌 산맥(祁連山脈)과 둔황(敦煌)에 이르는 허시후이랑(河西回廊)을 가로질러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북 끝자락을 따라 파미르 고원, 중앙아시아 초원, 이란 고원을 거쳐 지중해 동안과 북안에 이르는 길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연결되는 장대한 교통로였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빈번히 출토되는 서역계 로만글라스, 켈트식 보검이나 일본 나라(奈良)의 쇼쇼인(正倉院)에 보관돼 있는 서역계 악기, 병풍, 그릇류 등은 오래전부터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양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됐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크로드에서 디지털로드로

실크로드는 해상으로도 확장됐다. 15, 16세기에는 ‘대항해 시대(포르투갈어 Grandes Navegações, 영어 Age of Discovery)’가 개막돼 신대륙까지 포함하는 전 세계의 문화교류가 이뤄졌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에 따른 근대화의 개막은 문명교류를 더욱 가속시켰다. ‘이양선(異樣船)’으로 상징되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열강의 선박들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까지 출몰하여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다. 결국 19세기 후반 일본까지 가세한 외세에 의해 우리는 문호를 열어야 했다. 대항해 시대, 산업혁명의 시대는 제국주의의 확장에 따른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화라는 부정적 역사의 오점과 적잖은 후유증 또한 남겼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20세기 후반 디지털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포스트모던으로 대변되는 20세기 후반에 이뤄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혁명은 문명교류를 일상화시켰다.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넘는 '디지털로드(Digital Road)'가 탄생함으로써 문명교류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되었다.

과거에는 하나의 유행이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유입되려면 수많은 시간이 걸렸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수학자 유클리드(Euclides, Euclid)의 『기하학 원본(Elements)』이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중국명 利瑪竇, 1552~1610)와 명나라 관리 서광계(徐光啓, 1562~1633)에 의해 1607년 『기하원본』으로 번역돼 조선에 오기까지 무려 1천8백여 년이 걸렸다. 유대 땅의 지역종교였던 기독교가 사도 바오로(Paul, Paulos)에 의해 로마에 전파된 이래 이 땅에 오는 데도 비슷한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실크로

드 시대는 시간적·지리적 한계로 인해 확산범위는 제한됐고 단절되기 일쑤였다.

디지털로드의 시대에는 K-Pop과 K-Drama가 발신지인 한국과 실시간으로 세계에 전파된다.

한국의 지구대척점인 남미에서 똑같이 K-Pop과 K-Drama에 열광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 애써 감상을 권유하지 않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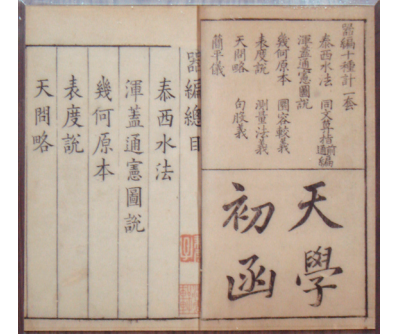
상대방이 매력 있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여지고 이를 이웃에게 전한다. 한국문화(K-Culture)를 정부기관이나 언론사, 매니지먼트사에서

전파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 평범한 외국인 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현상이 일상이 됐다. 보통사람들이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끊임없이 K-Culture를 실어나르고 있다.

2012년 7월 15일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란 노래를 부르자 유튜브 검색어 1위에 오



MATTHEVS RICCIUS MACERATENSIS QVI PRIMVS E SOCIETATE IESV E VANGELIVM IN SINAS IN VEXIT OBIT ANNO SALVTIS 1610 AETATIS 60



실크로드 시대 서양과학이 아시아에 전래되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적잖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마테오 리치와 그가 전한 유클리드 『기하학 원본』의 한문번역본.

르고 두 달 만에 조회수 2억 회를 기록했다. 18개국의 아이튠스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는 무한질주를 했다.

주로 정치지도자나 유명인사들이 소개되는 타임지에 해외에서 콘서트를 한 번도 갖지 못한 싸이가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같은 비중으로 소개됐다. 미식축구에서는 터치다운 세리모니를 싸이의 말춤으로 하고 관중들도 따라서 즐기고 있다. 월드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강남스타일’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난 이 뮤직비디오와 사랑에 빠졌다. 아주 재밌다. 안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내게 가르쳐줄 사람?(I am LOVING this video, so fun! Thinking that I should possibly learn the choreography. Anybody wanna teach me?)”이라는 글을 올려 깊은 관심을 표시하는가 하면 영화배우 톰 크루즈도 가수 싸이의 트위터를 방문해 팔로우 신청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톰 크루즈는 “우리 나중에 함께 ‘강남스타일’을 해보는 게 어떨냐”는 싸이의 제안에 “생각해보겠다(Think)”는 짧은 답글을 남겼다.

‘어느날 아침 깨어나 보니 유명해졌더라(He awoke, one bright morning, to find himself)’라는 시인 바이런(George Gordon Byron, 1788~1824)의 말이 빈말이 아닌 현실이 된 것이다. 뿐만인가. 마스크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충북 청원의 10대 소년 정성하가 클래식 기타 연주로 유튜브

조회수 5억 8천만여 건을 기록하고, 23세 청년 임정하의 일렉트릭 기타 연주가 조회수 수천만 건을 기록해 뉴욕타임스에 보도되는 등 갑작스레 유명인사로 등장한다.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통 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집단지성을 출현시킨 디지털로드 시대

디지털로드 시대는 과거 대왕의 길(King's Road) 시대나 실크로드, 대항해 시대와는 확연하게 차별점을 갖는다. 먼저 전달수단이 강압이 아닌 자발성에서 출발한다. 철저히 받아들이는 대상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 정치적 홍보전략이 수반되지만 그것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철저히 수용자의 감성에 기반을 둔 문화소비 형태를 띠고 있다.

디지털로드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ect)’의 출현이다. 한 세대 전만해도 국가권력, 경제권력만이 정보독점과 신속대응 능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당시 한 언론은 한국사회의 컴퓨터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마술상자라고도 불리는 이 가공의 기계(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57년 한

국전자계산소가 한국생산성본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면서부터였다. (중략) 이 중 6만여 대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경제기획원, 한국전자계산소, 서강대, 육군본부(2대), 건설부, 한양공대, KIST, 보사부 등 10여 대이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상은과 KCC(한국전자계산소) 등 3, 4개소. (후략)” 매일경제신문, 1969년 8월28일자, 5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속인터넷은 국가의 핵심기관이나 거대 기업집단밖에 보유할 수 없었다. 위성전화, 휴대폰 또한 지극히 선택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사진전송도 마찬가지였다. 한 예로 1980년대 말 신문제작용 컴퓨터 스캐너의 가격은 당시 강남아파트 한 채 가격이었다.

인터넷으로 표상되는 첨단기술의 혁신은 첨단기기의 코스트다운을 낳았고 대중의 지적 능력을 상상불허할 수준으로 높여줬다가 한 세대도 채 못돼서 초첨단 장비들이 이

시대별로 본 문명교류의 '길'

구분	시대	교류범위	형성계기	발신주체
King's Road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유럽~아프리카 유럽~아시아 일부	정치군사적 정복	국가
Silk Road	로마, 중국 한나라 대항해 시대	유럽~아시아 전역 아시아~아프리카 유럽~신대륙~아시아	정치군사적 정복 경제 침략	국가, 기업
Digital Road	21세기 디지털 시대	전 세계	문화-경제 교류	국가, 개인

제는 개인의 일상용품이 됐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1기가 바이트 용량의 하드디스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을 되돌아보면 기술의 발전은 상상을 불허한다. 눈깜박할 새 대중은 과거 극소수 권력집단의 전유물을 보유했다. 다시 말해 정보력과 신속성을 갖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개개인이 보내는 발신력들은 때때로 국가권력을 압도하기도 한다.

이처럼 첨단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코스트다운은 '집단지성'을 탄생케 했다. 집단지성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존의 소수 지식 계급과는 달리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 또한 국가, 기업, 언론 등 권력 집단을 감시하며 견제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5세기 인쇄술의 발달로 대중이 문자해독 능력을 갖게 됐고 절대권력과 맞서게 된 구텐베르크(Johannes Gensfleisch zur Laden zum Gutenberg, 1398?~1468)의 인쇄혁명을 능가하는 역사의 대전환이다. 집단지성의 출현은 더 이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대세가 됐다. 다가올 미래에서 일어날 변화의 폭과 크기는 상상할 수 없으며 집단지성과 소통을 못하는 문화는 도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5.1 Angles and Their Measure

Angles

As derived from the Greek language, the word **trigonometry** means “measurement of triangles.” Initially, trigonometry dealt with relationships among the sides and angles of triangles and was used in the development of astronomy, navigation, and surveying. With the development of calculus and the physical sciences in the 17th century, a different perspective arose—one that viewed the classic trigonometric relationships as *functions* having the set of real numbers as their domains. Consequently, the applications of trigonometry expanded to include a vast number of physical phenomena involving rotations and vibrations, including the following.

- sound waves
- light rays
- planetary orbits
- vibrating strings
- pendulums
- orbits of atomic particles

This text incorporates *both* perspectives, starting with angles and their mea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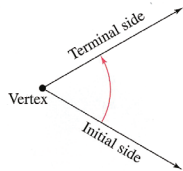


Figure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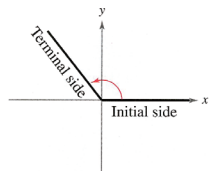


Figure 5.2

An **angle** is determined by rotating a ray (half-line) about its endpoint. The starting position of the ray is the **initial side** of the angle, and the position after rotation is the **terminal side**, as shown in Figure 5.1. The endpoint of the ray is the **vertex** of the angle. This perception of an angle fits a coordinate system in which the origin is the vertex and the initial side coincides with the positive x -axis. Such an angle is in **standard position**, as shown in Figure 5.2. **Positive angles** are generated by counterclockwise rotation, and **negative angles** by clockwise rotation, as shown in Figure 5.3. Angles are labeled with Greek letters such as α (alpha), β (beta), and θ (theta), as well as uppercase letters such as A , B , and C . In Figure 5.4, note that angles α and β have the same initial and terminal sides. Such angles are **cotermi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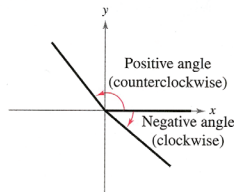


Figure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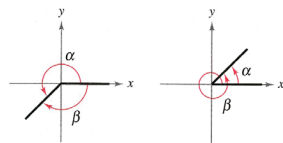


Figure 5.4

diebarbiani 2010/used under license from Shutterstock.com



What you should learn

- Describe angles.
- Use degree measure.
- Use radian measure and convert between degrees and radians.
- Use angles to model and solve real-life problems.

Why you should learn it

Radian measures of angles are involved in numerous aspects of our daily lives. For instance, in Exercise 106 on page 407, you are asked to determine the measure of the angle generated as a skater performs an axel jump.

디지털로드 시대에 한국문화는 매력을 갖춘 문화 발신력을 갖게 됐다.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미지의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1990년대초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2000년대 K-Pop을 넘어 2010년대에는 K-Culture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음악도들이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환영을 받는 모습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 흔한 일상이 됐다. 올림픽에서 축구 중주국 영국의 한복관에서 영국에 승리를 거두고, 야구 명가인 쿠바·미국·일본을 꺾는 것도 흔한 일이 됐다.

광복 이후 우리가 조금씩 쌓아온 문화소통의 성과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웃돈다. 세계가 단순히 한국의 대중문화에 감동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자체를 부러워하고 배움의 대상,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전자정부를 배워가고 한국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대로 이식되며 한국형 공무원 교육시스템, 심지어 법과 제도까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위 서구의 선진문화를 캐치업(Catch up)하던 개발 시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고교 수학교과서에 실린 세계 피겨 스케이팅 '여왕' 김연아 선수. 대중문화 차원을 넘어 한국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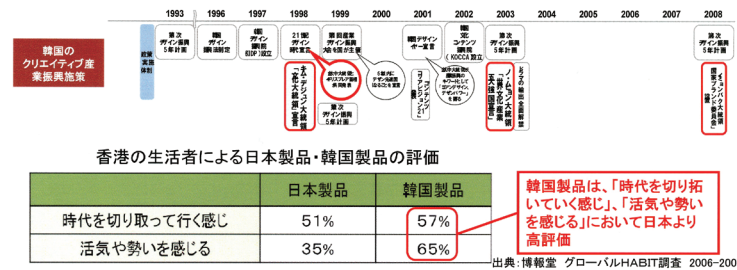
先進各国のクリエイティブ産業へのシフト

■英国、韓国などは政治的リーダーシップの下、クリエイティブ産業立国へ大きく舵を切り、継続的な取り組みを行い、成果を挙げつつある。

英国	韓国	米国						
<p>■ 97年にトニー・ブレア元首相が「クール・ブリタニア」を宣言。以後、以下の取り組みにより成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クリエイティブタスクフォース」による横断的取り組み 「デザイン・カウンシル」を中核とした産業全体の創造力強化 大使館や貿易・対英投資部による徹底した海外市場開拓支援 	<p>■ 97年にキム・デジュン大統領が「文化大統領宣言」。以後、官民一体となったCool Korea戦略でアジア市場に浸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デザイン振興院」「コンテンツ振興院」の設立 振興マーケットへの官民を挙げた戦略的売り込み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KOTRA)を中心とした海外市場獲得支援 <p>■ 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国家ブランド委員会」を設置し、国家的に文化産業を育成。</p>	<p>■ 29年にルーズベルト大統領が「ニューディール政策」を表明。この政策の一環として、35年に「事業促進法」による芸術家雇用政策「フェデラル・ワン」(連邦計画第1号)による4万人の芸術家を雇用。</p>						
<p>効果</p> <table border="1"> <tr> <td>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種別増加数</td> <td>1. 8倍 (97年 → 06年)</td> </tr> <tr> <td>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輸出額</td> <td>1. 7倍 (00年 → 06年)</td> </tr> <tr> <td>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事業消放</td> <td>1. 4倍 (97年 → 08年)</td> </tr> </table>	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種別増加数	1. 8倍 (97年 → 06年)	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輸出額	1. 7倍 (00年 → 06年)	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事業消放	1. 4倍 (97年 → 08年)		<p>効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欧州などの多くの優れた芸術家が米国へ流入 米国内の地域社会の文化の発展 1945年以降のプロドゥワーミュージカルやハリウッド映画といった文化芸術産業の反映 等
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種別増加数	1. 8倍 (97年 → 06年)							
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輸出額	1. 7倍 (00年 → 06年)							
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事業消放	1. 4倍 (97年 → 08年)							

(参考2) 韓国のクリエイティブ産業振興政策

- 韓国では、通貨危機後の97年、キム・デジュン大統領が「文化大統領宣言」。以後、官民一体となったCool Korea戦略でアジア・マーケットに浸透。
- ①「デザイン振興院」「コンテンツ振興院」の設立
 - ②新興マーケットへの官民挙げた戦略的売り込み
 - ・韓流ブームを起こし、ファッション、コンテンツ、消費財を一体で売り込み
 - ・上海、香港→ベトナム・タイ→インドという順番でブランドイメージを確立
 - ③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KOTRA)を中心とした徹底した海外市場獲得支援
- 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国家ブランド委員会」を設置し、国家的に文化産業を育成。



2012年1月 韓国のクリエイティブ 전략을 선진국 사례라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소개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쿨재팬전략' 보고서.



미래학자 허만 칸(사진)은 이미 1960년대에 한국이 2000년대에는 유럽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코리아스타일’, 국내보다

해외에서 높이 평가

그동안 우리는 우리 것은 폄

하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해

왔다. 지금도 그런 잔재는 남

아 있다. 흔히 문제에 봉착하

면 선진국, 외국(흔히 유럽, 미국을 가리킨다)의 사례나 기준을 들먹이며 우리는 아직도 멀었

다고 비하할 때가 많다. 오히려 선진국의 학자들 가운데 한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

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일찍이 미국의 미래학자인 하버드대 교수 허만 칸(Herman

Kahn, 1922~1983)은 1960년대에 이미 아시아로의 권력 이동이 1980년대에 시작된다고 예

견했다. 1973년 7월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그는 한국의 미래를 다

음과 같이 예견했다.

“한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데다 교육된 기술자의 해외파견 기회 등이 늘어나고 있어

경제적 전망이 밝은 나라이며 1980년대에는 아시아의 부강국으로, 그리고 2000년대에는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1986년 대만계 일본인 문명사가 샤세이키(謝世輝, 1929~) 일본 도카이대 교수는 『日本이 美國을 추월하고 韓國에 지게 되는 理由 日本がアメリカを追い抜き、韓国に蹴落とされる理由』라는 저서에서 한국은 2000년에 1인당 GNP가 8천 달러에 이르고 대외차관은 2010년부터 흑자국으로 전환, 또 21세기 초기 세계 제1의 자동차왕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의 낙관적 전망에 대해 당시 국내의 언론인, 지식인들은 장밋빛 투성이라며 반신반의했다. 21세기 초에 진입한 오늘날, 허무맹랑해 보이던 이들의 주장이 우리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이란 시각도 외국에서 대두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 정부에서 ‘선진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다. 2012년 1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쿨재팬전략’을 발표하면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한국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선진국 사례’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이 진단한 한국의 발전 성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영국, 한국 등은 정치적 리더십으로 크리에이티브 산업입국으로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추진,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다. 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대통령 선언 이후 민관 일체가 돼 쿨코리아 전략으로 아시아시장에 진출했다. 디자인진흥원,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여 민관을 통틀어 전략적으로 집중했다는 것. 여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획득 지원도 한몫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 국가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세계에 내세울 것은 별로 없었다. 고려청자, 금속활자, 한글 등 과거 문화유산 몇 점 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남들이 우리의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프랑스문화원(알리앙스 프랑세스), 독일문화원(피테인스티튜트)에서 언어를 배우거나 영화 감상을 하러 가는 게 교양인의 모습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2012년 11월 19일 독일의 유력 일간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한국의 성공 역사(Südkoreas Erfolgsgeschichte)’제하의 도쿄 특파원 카르스텐 게르미스(Carsten Germis)의 기명 기

사에서 한국 경제성장의 비결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한국은 1년에 한 번 외국인 투자자들을 서울에 초청한다. 행사 주최측은 전 세계의 금융인들과 펀드매니저, 그리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왜 이 역동적인 국가경제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들이 언급하는 수치들은 한국이 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명제를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다. 선진 산업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적 역동성을 잃고 있는 반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2012년 3.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파나소닉과 소니와 같은 일본의 유명한 전자기업들이 손실을 입고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동안, 삼성은 분기마다 최대 매출액과 최대 수익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애플이 좀 더 유명한 상표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는 삼성이다.

서울의 삶은 이러한 역동성을 대변하고 있다. 비록 서울은 사람보다는 자동차에 맞춰져 건설되었지만, 교통은 언제나 혼잡하다. 거의 모든 자동차는 신차처럼 보이는데다가 차량도 너무 많다. 스마트폰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지방의 인적 드문 산골농

장에서도 방문자들을 위해 무료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더 빠른 템포를 금방 느끼게 된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 역사는 이례적이다. 1950년대에만 해도 한국은 동아시아의 빈국에 불과했다. 하지만 산업 중심지가 있었던 공산주의 북한이 경제변영에 실패한 반면, 농업 위주의 한국은 세계 9위의 무역국가로 성장했다. 그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빠르게 개발원조 대상국에서 중요한 개발원조 공여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러한 성공의 근거는 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을 기러기 모델과 비교한다. 기러기처럼 한 국가 - 아시아에서는 일본 - 가 다른 기러기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은 성공모델을 모방하다가 언젠가는 우두머리 기러기를 앞서가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처럼 한국의 산업 역시 처음에는 값싼 상품 위주였고 종종 미국이나 일본의 상품을 모방했다.

하지만 낮은 생산비용만으로는 지속적인 성공을 설명할 수 없다. 경제적 역동성은 대부분 기술혁신의 힘이라는 점은 OECD가 확인해준 바 있다. 2011년에 한국은 유럽 특허청에 약 5천 건의 특허를 제출했으며, 미국, 일본, 독일만이 한국보다 출원 건수가 더 많다.

만일 기업만으로 본다면,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3개 기업은 세계에서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12개 기업에 속한다. 한국기업들은 소니와 같은 일본 기업들을 보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후략)

지난 2011년 1월 3일 프랑스 국영 2TV의 간판 프로그램 「세상을 보는 눈 Un Oeil sur la Planete」은 한국을 집중 조명했다. 이 프로그램에 비친 한국은 북한과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역동적이고 짧은 시간에 이례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 많은 노력을 하고 하는 나라(교육, 직장 등),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나라, IT 부문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 열정이 있는 나라로 인식됐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의 숨겨진 저력은 바로 열정이라고 분석하며 한국은 현대와 전통이 잘 어우러진 나라이며,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브리엘레 메네가티(Gabriele Menegatti) 전 주한 이탈리아 대사는 “한국의 성장은 하나의 비범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독일 모델을 참조하여 하이테크, 자동차 그리고 중공업 분야에 대한 일본과의 가격경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수출에 초점을 맞춰 무차별 전략이 아닌, 서유럽과 오랫동안 광대한 시장이지만 소홀히 하던 중국의 북부지역에 집중했다”며 한국경제의 ‘붐’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탈리아 경제전문지 Panorama Economy, 2012년 5월 9일자, 16~17면)

이제 한국은 세계가 배울 수 있도록 준거를 마련해야 하는 글로벌 국가로 진입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건강보험이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난제였던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재해가 나면 신속하게 구조하고 의식주 일체를 제공하는 비상구조 시스템도 그렇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의 비상구조 체계는 지나치게 경직돼 수많은 원성을 들었다.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고 현장에 인력과 물자를 제공하는 한국과 비교된다는 여론이 들끓었을 정도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성취한 이래 이제 한국은 남들이 부러워하고 배울 것이 적잖은 역량을 갖추게 됐다.

인류문명사의 획을 가르는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로드 시대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다. 반만년 역사상 K-Culture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것은 분명 축복이며 기회다. K-Culture의 빠른 확산은 거꾸로 뒤집으면 빠른 반작용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매력의 대상으로 등장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디지털로드 시대에는 더 이상 '우리식'대로의 폐쇄성, 특수성이 통하지 않는다. 전 세계가 단일 경제권이나 다름없게 돼 한 지역이 위협을 받으면 곧바로 우리에게 파급되는 위기의 상시화(常時化) 시대이기도 하다. 세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경제·환경·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디지털로드 시대에 이르기까지 K-Culture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오늘날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역동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반성해야 할 요소들도 적잖게 있을 것이다.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문화는 힘이며 우리의 또다른 생존방

식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K-Culture의 확산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 경험하는 현상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례다. 이는 지난 2천여 년간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연결해준 실크로드에 비견할 수 있다. 실크로드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도보·철도·항해 등 아날로그식 소통수단을 통해 지탱돼 왔다면 IT, 첨단기술로 대표되는 디지털혁명은 보이는 길을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비단'을 매개로 한 길이 이제는 '디지털'을 매개로 한 K-Culture의 시대를 연 것이다.

디지털매체를 전파수단으로 하는 K-Culture는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로드의 탄생은 실크로드, 대항해 시대에 이어 인류문명사의 획을 가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